

2026년 개정판을 내면서

소득세 실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교재는 복잡한 세법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세법이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개념 간 연결을 명확히 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학습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상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세법지식을 정리하고 각종 신고양식을 첨부하여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저학년 과정에서는 제2편 제2장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3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세무조정, 제5장의 연금소득, 제10장의 추계사업소득 계산, 제4편의 양도소득세 등은 개념 소개와 기본 이해만으로 충분하며, 상세 내용이나 세무사 기출문제 같은 고급 학습은 고학년 과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 본 교재는 NCS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주요 능력단위는 ‘원천징수’, 보조 단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부록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능력단위 명세서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 수준을 넘어서는 심화 영역은 학년과 학습 수준에 따라 적절히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5년말 소득세법 개정은 수출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벤처투자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청년, 무주택 부부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 완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도 주요 방향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세 형평성과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실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뿐 아니라 문제 풀이, 신고서식 작성 등 실제 업무와 가까운 학습 경험이 필수적이다. 각 장의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도록 구성하였으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세법이 실생활과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으로 체득되기를 바란다.

2026년 2월 저자 씀